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2월 24일(주일) 제1234호

순장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

2019 순장영성수련회, 3월 1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
공동체 리더십(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2천 명 참석

온누리교회 순장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2019 순장영성수련회'가 오는 3월 1일(금)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순장영성수련회는 순장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는 축제이다.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온누리교회 리더십(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등) 2천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장영성수련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진호 장로 대표기도, 3.1절 100주년 기념영상, 이재훈 담임목사 강의, 서빙고 교역자 스킷 드라마, 방선기 목사 강의, 점심식사 및 이벤트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공동체 사례발표, 패널토의 '순장 노하우', 신임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 온누리 순장 어워드, 기도회 등이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1부 행사에서 '순장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하고, 2부에서는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방선기 목사는 '공동체의 영성: 미션 디모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날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신임 다락방장과 순장 580명이 임명장을 받는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최장기 순장(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섬긴 순장), 최다산 순장(분수를 가장 많이 한 순장), 기러기 순장(순을 섬기기 위해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순장), 감동 순장(공동체에 모범이 되며 귀감이 되는 순장)을 시상한다.

점심식사는 공동체별로 신관 뒤편 동빙고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부근에서 한다. 이천만



사진은 지난해 순장영성수련회.

광장에서는 신발던지기, 해머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전자드트 등의 게임존이 운영된다.

순장영성수련회 당일에는 교회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이나 유료주차장(신동

아쇼핑센터, 한강시민공원, 동작대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셔틀을 이용해도 된다.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회와 이촌역 4번 출구를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어린 자녀들(36개월~초등 3학년)을 위한 탁아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꿈터(본관 2층)에 마련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제3회 시청수기 공모전

CGNTV가 제3회 시청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CGN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를 3월 22일까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나 이메일(cgnessay@cgnmail.net), 우편 및 방문(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3월 29일 CGNTV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한다. 수상자들에게는 스마트폰, TV, 외식상품권, 보조배터리, 커피 기프티콘 등이 수여된다.

문의: 02-3275-9446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타협의 거센바람'

3월 6일, 13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차세대 교사부흥집회가 '타협의 거센바람'을 주제로 3월 6일과 13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음세대들이 학교와 세상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다. 3월 6일에는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가 '기독교 학부모, 기독교 교사'를, 3월 13일에는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ACT) 대표)가 '타협의 거센바람'을 주제로 강의한다.

노히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차세대 교사부흥집회에 적극 참여해서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통일세미나

3월 9일 오후 2시 양재 화평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핵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개최한다. 3월 9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통일세미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다양한 국제시각 측면에서 북핵 문제와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김창수 박사, 이태환 박사, 이지수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010-9064-6080

특별기고

3.1운동과 기독교 여성



주선애 교수
(장로회신학대)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여자와 사기그릇은 밖에 내돌리면 못 쓴다”는 옛말이 한창 쓰여 질 때였습니다. 즉, ‘남존여비사상’

이 전통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독립운동 같은 국가적 거사에 참여할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어나서 3.1운동이라는 민족적 거사에 역사상 처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여성(기독교 여성)들의 독립운동

1919년 10월 개최된 장로교회 총회 기록에 의하면 감금된 남자 신도 수가 2,125명, 여자 신도 수가 531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감금된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의 수가 4:1의 비율로 나타난 셈입니다. 지금 같이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대체로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여성들은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하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당시 기독교 여성들의 엄청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여성(기독교 여성)들의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일찍이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중이었던 김마리아 선생은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재일 한국인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문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모였을 때 동참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혀 가서 구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학생들이 작성하고 낭독한 ‘독립선언문 초안’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일제의 감시가 두려워 모두가 주저할 때 여성인 김마리아 선생이 용감하게 그 역할을 자원하였습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겠지요 선생은 늘 한복을 입으셨지만 그때만은 일본 옷을 입고 오비(일본식 허리띠)속에 선언문을 숨겨 넣은 채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와 국내의 애국지사를 찾아가서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그토록 무서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온 국민이 일제히 독립 만세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마리아 선생의 결연한 희생정신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새크라멘토(Sacramento)부인회’는 아래와 같은 통지문을 보내며 미국 내 다른 지역의 한인 부인회와 연합을 호소하였습니다.



“부녀 동포여! 국내 동포는 독립선언 아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어나서 앞선자가 쓰러지면 뒤에 있던 자가 계속하여 생명을 바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가? 국내에서 나오는 부녀운동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만세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 왜적에게 맞아서 국기를 들고 거꾸러지는 것이 보이는 듯 하여 비분강개한 눈물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줄기 눈물만으로 이를 방관할 수 없은즉 우리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한몫을 하기로 하자. 이제 미주 안에 몇 개의 한인 부인회가 있으니 반드시 함께 합동하여 통일 단체를 만들고 우리 부녀들의 운동을 강화하자.”

하나님 사랑 나라사랑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여성들의 활약은 김마리아 선생이나 미주 한인 부인회와 같은 신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안정석 권사’라는 여성은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과부처였지만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당시 평양 남산교회 김찬홍 목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에 있는 등사판을 사용하여 3.1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서 등을 몰래 운반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들이 빨래 광주리에 숨겨

넣어 빨랫감으로 가리고 빨래하러 가는 척하며 머리에 이고 날랐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잔인무도한 일제에 들기면서 온갖 고초와 학대를 받으며 옥살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늘 여종처럼 묵시처럼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것만 배워온 이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와 나라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안고 3.1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때까지 남존여비사상에 눌러 지냈던 것만큼이나 뜨거운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 받은 기쁨과 그 구속의 역사에 감격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나라의 독립운동 자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고 민족 사랑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기독교 여성들의 양심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민족의 분단으로 인해 북녘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해매고 있습니다. 몇몇이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고, 북녘의 젊은 딸들 수십만

명은 배가 고파 생명을 걸고 탈출은 하였으나 중국 사람들에게 붙들려 윤락가로 팔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복송되어 피살 되거나 공포 속에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에 왔다고 해도 자신의 가족들과 산산이 흩어져 생사도 모른 채 가슴 아픈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하는 탈북자들의 생활을 우리 남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사회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타락으로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여성들은 경제적 여유를 즐기며 안일한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북한의 동포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저 무관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의 손을 펼 수는 없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 같은 우리 민족입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그토록 죽어 가는데 그들의 해방과 나라의 복을화를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생활에서 절제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사회에 비추어 주어야겠습니다. 동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도록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일어섰던 3.1운동 당시와 같지는 않다고 해도 절제와 정직한 생활로 사회의 허위를 막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윤리적 일탈 (동성애, 성폭행)의 문제도 어머니들의 지혜롭고 정상적인 양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으로 바뀌어 갈 수 있으리라 믿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생활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뜨거운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생활 속에 배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선배 기독교 여성들처럼 피와 눈물을 흘리는 나라 사랑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다시 한 번 불붙어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인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 재건되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거의 빠짐없이 “기도가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 뿐 진정으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해를 맞아 단순한 생각과 바람에만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 생활도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큐티가 ‘경건의 시간(Quite Time)’이 아니라 ‘퀵 타임(Quick Time)’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큐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와 특권

믿음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마음, 의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고 계실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잘못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도에도 그 뜻을 바꾸신다는 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만 맞는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 바꾸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목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변화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따라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의 기도에도 맡겨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으로 되겠느냐?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라는 분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조차 기도 없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기도야말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일하게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양심적인 신학자 헬무트 티리케(Helmut Thielicke)도 “하나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들을 통해 이 지구와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던 때가 바로 연합군에 의해 독일 곳곳에 폭탄이 투하되던 시대였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기도의 손이 중요하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락이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친구로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친구가 될 때 마음을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때 친구가 됩니다. 나의 결정과 계획을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참조하고 싶은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역사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참조하시고, 때로는 그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기도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족속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도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땅에 악이 만연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영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끌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창 18:23-25).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와 논쟁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였고,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생각을 알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

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인들이 그 성에 있다면 악이 아무리 만연할지라도 남아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멸망시키는 일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만약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 성을 용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26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말해놓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니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5명이 부족한 45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좋다. 만약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45명을 말해놓고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섯 명을 감한 40명을 제안했습니다.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40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40명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10명을 감합니다.

“하나님, 3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30명만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30명에도 자신이 없어 다시 10명을 줄여 20명을 제안합니다.

“만약 2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이제 20명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10명을 줄여서 10명을 제안합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치 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1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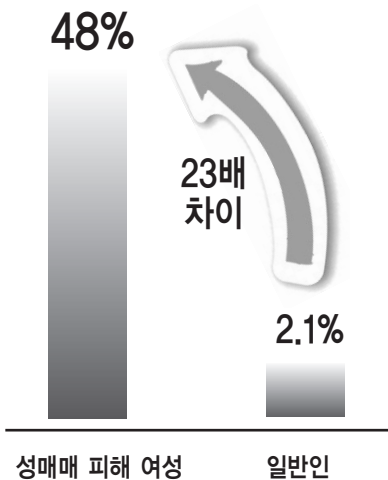
한번 빠지면 영혼까지 훔아매는 ‘성매매’

자의든 타의든 발 디디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회의 역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몸을 팔아 돈을 버는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물론 이유를 막론하고 몸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윤리적,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라 칭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하나님의 딸들을 교회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의든 타의든 성매매에 발 한 번 디디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하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살 시도율



탈성매매 여성 약물 복용 경험

있다(49.8%)



적으로 성매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의 업소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성매매의 59%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키스방, 안마방 같은 업소는 변종형으로 분류되는데 전체 성매매의 약 15.4%를 차지한다. 온라인 성매매 5.3%, 기타(오피스텔) 성매매 4% 등의 순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 지원 제도는 사창가나 집창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그 대상이다. 그 여성들은 전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의 약 16.4%정도를 차지한다. 가장 취약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이다.

**성매매로 많은 돈을 번다?
신체 및 정신건강까지 잃는다!**

온라인 공간에 가면 “어렵지 않게 1억을 모았다” 등의 성매매 여성의 후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매매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운이 정말 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 여성들을 등급을 나누어 관리한다. A급은 좋은 대우를 받고 비싼 값에 팔린다. 하지만 A급들도 결국 성매매 업주들의 손아귀에서 돌아난다. 많은 돈과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하면서 성매매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억압은 여전히 존재한다.

성매매 업주들은 경제적, 정서적, 물리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통제하고 훔아매는다. 선불금, 불합리한 수익 분배 구조, 연계 업소 및 상인을 이용한 착취,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등을 사용한다.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도 착취구조에 의해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많은 탈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오래 있을수록 돈은커녕 신체 및 정신건강까지 잃게 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과분석 자료(2016)’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성매매 여성)의 자살 시도율은 48%로 일반인(2.1%)보다 23배나 높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기준 성매매 여성 15만 1036명 중에서 50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1년 탈성매매 여성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정도(110명, 49.8%)가 약물 복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실태조사’에서 성매매 피해자 10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대부분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및 지원방안’에서도 성매매 여성 55%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여성도 65%에 달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자존감이 성매매 여성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활 돕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적극 도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든지 허약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과 믿음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사랑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욕구 해소의 대상, 돈을 버는 도구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같은 성매매 여성들끼리는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먹고 살 기술과 재주가 없어서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녀들을 위한 양질의 직업훈련도 절실하다. 전국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소와 쉼터 등지에 가면 그녀들을 섬길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을 번 분들이 2천만 원 받고 난 다음에 자활교육을 받고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

대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제도’에 대한 모 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생각도 모 의원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시민들이 범죄의 온상, 탈세의 온상으로 불려도 손색없는 성매매 산업의 핵심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모 의원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지원금과 자활교육을 받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더욱 헌신적으로 돌보고 섬겨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창조된 목적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2004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이 이슈가 된 이유는 ‘지원금 2천만 원이 한 꺼번에 그냥 주어진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천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탈성매매 각서와 자활계획서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주거 지원비 700만 원, 생계비 월 1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등이다. 주거지원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갚아야 한다. 모든 지원은 탈성매매가 조건이다. 활동가와 교육 담당자가 상황을 점검해서 다시 성매매를 하면 지원금을 환수 당한다.

한국의 성매매 실태

교회가 성매매 여성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암시장(Black Market) 리서치 업체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Havocscope)’의 발표를 보면 한국을 성매매 공화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 규모이다. 세계 5위인 미국보다 3조 원 정도 적고, 7위 인도보다 3조 원 정도 많다.

한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존재한다. 업소형태에 따라 전업형, 겸업형, 변종형, 온라인으로 분류한다. 가장 고전적인 성매매 형태가 ‘성매매 집결지’다. 이른바 홍등가, 사창가, 집창촌으로 불린다.

가장 많은 성매매 형태는 겸업형이다. 부가

그녀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바라보는 시선 달라지기를



최선 선교사
(이웃사랑교회)

최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는 지원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찬반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대구와 인천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면서 그곳을 터전으로 살던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지원금 1인당 2천만원(생계비 100만원씩 10개월, 이주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원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글에 인간으로서의 그녀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람’보다 ‘세금’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글들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교란시키는 대중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바라보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성매매 피해 여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불법행위’라는 범주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 긴 세월 동안 최소한의 권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가족에게 자신이 어떤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 중에 일어나는 비인격적인 대우나 불이익에 대해 의논할 대상이 없다. 혹시 가족에게 전해져도 주변에 숨기기만 급급할 뿐 그녀들을 지지해 주거나 대변해주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성매매 현장은 성 구매 남성들의 성욕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비인격적 폭력의 공간, 수입을 위해 어떠한 여성도 마다하지 않는 업주들의 폭주 구간이 되고 말았다. 성 구매 남성들의 선호나 지급수준에 따라 여성의 외모를 A급부터 끝 모를 등급으로 가치평하 하고 상품화 하고 있다. 업주들로부터 가치상승을 위장한 성형과 다이어트 등의 압박과 종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고가에 해당하는 비용은 모두 성매매 여성들의 몫이고 대부분 빚으로 남는다. 소위 A급 여성에게는 극진한 대우를 통해 ‘여기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까’ 싶을 만큼 공을 들인다. 그 탓에 밖으로 나갔다가도 결국 거기로 돌아오게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상대해야 하는 남성의 수는 하루에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다. 이쯤 되면 아무리 고와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녀들의 정신과 몸은 약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업주 가운데는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여성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웃값,

화장품값, 목욕비, 병원비, 숙식비로 처리하며 10여 년 동안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만큼 파렴치한도 있다. 그들은 폭력 행사는 물론이고 아는 건달이나 사채업자와 모의하여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해 공증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성매매 피해 여성은 억울해 하면서도 그것을 갚기 위해 한동안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의든 타의든 한 번 발을 디디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든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은 상당 부분 업주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무력해져가면서 각종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면증,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한다. 심리상담을 진행 중인 반 이상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 그녀들을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 같은 상황이 조직력이나 관례들을 통해 성이 착취당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업소

역에 유명 집창촌이 있었던 까닭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신학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도 누군가를 보내 달라’는 기도 끝에 어느 날부터 ‘이러다가 내가 가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올라올 즈음 그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 부담을 털어내고 싶어 1년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 전도하겠다고 결정했다. 1년의 전도기간 중에 다행히 아내의 반대가 수그러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의 반대가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될 면죄부가 되어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만큼 길이 녹록치 않았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당위성만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접으리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기도 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사역에 필요한 것을 한 번도 어김없이, 때에 맞게 채워주셨다.

사역 3년차가 되었을 무렵 매주 지속되는 전

아닐까? 의심이 든다. 어떤 이들은 ‘그것 봐, 그렇게 된다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때의 시간들을 의미 없다고 할 수 없다.

2016년 가을, 또 다른 여성이 업주가 자기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려고 한다며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그 무렵 청량리 588을 철거하면서 주거지를 잃은 여성들을 위해 선교회 자체적으로 준비해 둔 쉼터가 있어 그곳에서 생활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적 불안감과 생활능력은 혼자 쉼터에서 지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녀는 늘 많이 아팠다. 다행히 그 무렵에는 상담소에 나오는 정부지원금이 있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나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한정액이 있어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였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생활능력은 물론 아무런 기술이 없는 그녀를 근처 고시원으로 옮겨주었고, 상담소로 매일 나와 상담도 하고, 자잘한 일거리를 주면서 안정을 찾게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지적장애 검사 결과 3급이었고 그밖에 지병에 대한 검진결과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삶이 유지될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생기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1년 3개월 동안 선교회에서 찾아준 부업으로 월 35~40만원을 벌고,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올해 2월 LH의 도움으로 아늑한 보급자리도 생겼다. 물론 2~3개월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자기조절능력이 아직 부족하기는 해도 스스로 밥해 먹고, 청소하고, 유쾌한 웃음을 지을 줄 안다. 청량리에서 오래도록 그녀를 보았던 다른 성매매 피해 여성들도 선교회 예배시간에 그녀를 만날 때마다 놀라곤 한다.

이 글 서두에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안타까워하였다. 또 성매매 피해 여성이 왜 피해 여성이라는 질문에 내가 본 현장이야기로 답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1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그것을 주장한다고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나와 함께 해온 자매(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애써 지원하는 그녀들이 모두 탈성매매나 새로운 삶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녀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를 알 것 같아 감사 드린다. 우리의 시각에서 약간의 이기심과 편견을 닦아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누군가 지원금 2천만 원 줄 테니 당신이 하는 생업을 접고, 준비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겠는가? 그것이 전부인 여성이 그곳에 아직 많이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 약간의 이기심과 편견을 닦아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에서 선불금 1천 만 원을 사용하고 약 1년 동안 갚다가 B업소로 옮길 때 A업소 업주는 각종 비용을 추가해서 B업소에서 다시 1천 만 원을 받고 여성을 두고 간다. 그동안 갚은 것은 이자였고, 숙식 등을 해결해줬으니 그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계산법에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이나 계산력이 약하고, 합리적인 대인관계에 취약하며, 이런 일이 두어 번 반복되면 희망마저 꺾여버리는 여성들의 자포자기를 업주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 길어진 결과다. 그러므로 ‘성매매’라는 거대한 조직에 의해 오랜 세월 길들여지고, 희망마저 무뎌진 그녀들을 ‘피해자’라 아니할 수 없다. 업주들은 재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못 뿐 아니라 업소 여성들의 것조차 착취하기도 한다. 여성은 재개발사업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없는 구조에 놓인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주소를 다른 곳에 두거나 구두계약으로 전전세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청량리588’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폐쇄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

내 이름은 ‘윤락가 선교사’

2010년 3월, 사역에 대한 아내와의 갈등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윤락가 선교’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사역 시작 전 나고 자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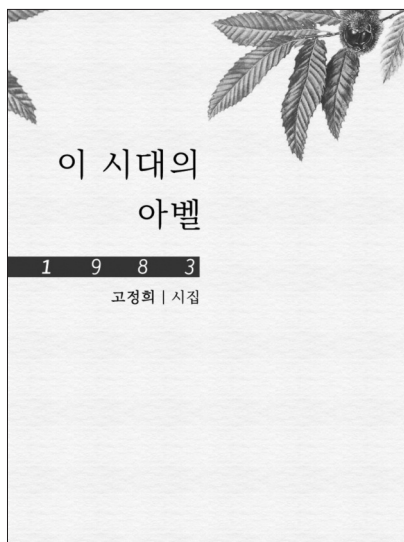
도활동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해 왔다. 본인은 한 업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업소에서 무조건 탈출시키기에는 그 여성에게도, 선교회 사역에도 위험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자로 서로의 상황을 전하며 그녀의 자유를 도모하였다. 드디어 그녀를 구조한 날,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밀려왔다. 쉼터를 완강히 거절하던 그녀가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었다. 그 무렵 아내는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고, 그녀를 흔쾌히 집으로 받아 들였다. 우리 가정은 수입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고, 많지 않은 후원금은 오토이 이웃리치와 그녀를 위해 사용했다. 15평 남짓의 투룸에 우리 부부가 성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도와 고심 끝에 그녀를 위한 작은 원룸을 준비하고 나니 지출할 비용이 더욱 커졌다. 삼푸를 사 달라는 요청에 다음 후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린 적도 있다. 그녀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고, 그것들을 충족시킬 만큼 여유롭지 않았던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시키고 지역 내 쉼터에서 기거하도록 권면하였다. 고마움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한 그녀는 못내 아쉬워하면서 쉼터로 옮겼으나 잘 적응하지 못했다. 어느 날 언니가 아파서 본인이 돌보게 됐으며 떠났다. 그 후에는 독일에 다녀올 간데 돌아올 때 맛있는 차를 사 오겠다는 글을 남긴 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닐까? 그것을 숨기려고 독일행을 연출한 게



책 읽어주는 목사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시인의 <이 시대의 아벨>



《이 시대의 아벨》
고정희 저 | 문학과 지성사

신학대학원 입학 시절이었다. 나는 온 세상을 넉넉히 품을 만한 영적 여유, 면밀한 성찰, 깊은 영적 감수성과 순결함을 가진 신학생이라고 스스로를 오인했다. 사실 나는 언급한 어느 것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목회에 대한 야망과 영적 비전함이 내 안에 넘실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

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울면서 이를 갈았지만 어떤 순전한 진보도 일구지 못했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학초년생 시절, 고정희 시인(1948~1991)의 <이 시대의 아벨>(문학과 지성사, 1983년)이라는 시집을 만나게 되었다. 고정희(본명: 고성애) 시인은 1948년생으로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지방신문과 잡지사 기자를 거쳐 여러 출판사에서 일하며 시를 썼다. 1975년 시 전문지 <현대시학>의 추천으로 등단한 이후 1979년 <누가 홀로 술들을 밟고 있는가>를 비롯해 1991년 지리산 등반 도중 실족해 타계하기까지 10권의 시집을 남겼다.

내가 조우한 작품집 <이 시대의 아벨>은 작가의 네 번째 시집이다. 생전 고정희 시인은 자신의 시에 대해 ‘부드러운 언어로 강한 것들을 노래하는 것’, ‘아름다움과 강력함이 어우러지는 절실한 것들을 모국어로 득음하려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의 언어 속에는 하늘 아래서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었다. 괴로운 현실과 흔들리는 존재의 암울함을 예리한 언어로 그려내지만 마지막에

는 낙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 시집은 신학초년생 시절 흔들리는 나를 다잡아줬다.

책의 제목 <이 시대의 아벨>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 작품집은 제1부 ‘서울사랑’, 제2부 ‘이 시대의 아벨’, 제3부 ‘벌거숭이산을 위하여’, 제4부 ‘상한 영혼을 위하여’, 제5부 ‘사랑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집에 담겨진 노래 가운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울림을 주는 노래가 다를 것이다. 당시 나에게 특별한 외침으로 다가온 시는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작품이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 뿌리 깊으면야 / 밑둥 잘리어도 새 순은 돋거니 /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정희 시인은 ‘상한 갈대’로 표현되는 인간의 삶을 매우 선명하게 관찰하고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그 폐부를 파헤쳤다. 우리가 아파할 만큼 아파하고, 눈이 부르트도록 고통 속에서 울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고통과 설움의 땅 뿔뿔히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상한 갈대’와 같은 상한 영혼들에게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상황 속에도 매몰되지 않는 역설적 의지와 생명력은 고통을 고통으로, 결핍을 결핍으로 순전히 수용하는 넉넉한 실존적 승인에서 비롯된다. 이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땅으로 임하는 하늘의 손’에 대한 운명적 신뢰 때문이다. 신학 초년생 시절, 고정희 시인의 노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감싸주는 내 인생의 포대기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다른 것은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고 흔들리는 이 시대가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뜻한 위안과 희망이다. 이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상한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이기진 목사
(분당B공동체)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사를 지내서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답: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에 맞추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가족의 정도 나눕니다. 기독교는 부모의 추모를 금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모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의식인데 이 예배를 부모님의 기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추모 예배 즉, 기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왜 제사를 지낼까?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불효자였다고 생각하며 후회한다. 그래서 그날(기일)만이라도 생전에 하지 못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부모님 사진에 절을 하며 그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상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다가 그만두면 조상에게 해코지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고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리면 조상신이 직접 내려와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마음에는 부모님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독교에도 일반 제사와 같은 추모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된다. “우리 기독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에 맞추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가족의 정도 나눕니다. 기독교는 부모의 추모를 금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모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의식인데 이 예배를 부모님의 기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추모 예배 즉, 기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이 꼭 지켜야 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

한 계명으로 나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3)”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효와 추모에 대해 설명한 이후 기독교에서 제사를 금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인데 제사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2계명은 ‘어떤 형 태든지 우상(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라’ 인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갖다 놓고 절하기 때문에 2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이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 전도대상자의 가정을 축복하며 하

나님에 대해서 알리거나 제사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면 좋다. 내 환자 중에도 제사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이 계신다. 먼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던 아내와 동생이 제사 문제로 다투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다. 그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 제사 문제로 다룰 때는 먼저 믿은 사람인 우리가 인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감싸 줄 수 있어야 한다. 희생과 사랑이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더욱 상세한 대답은 필자의 저서 <날마다 111 전도> ‘반대질문’ 코너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장경문 장로
(양천공동체)

Holy Spirit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한 소년이 있었다. 비좁고,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다섯 식구가 무려 20년을 살았다. 그래도 행복했다.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을지언정 가족들은 세상 누구보다 화목하고 단란했다. 물론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열악한 환경 탓에 수술을 몇 번이나 했다. 그 힘든 나날을 보내던 소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교회 사람들이었다. 소년은 다짐했다. 훗날 자신이 도움 받은 것처럼 남을 돕겠노라고, 성인이 된 소년은 그 다짐을 잊지 않았다. 사진작가가 되어 선교사와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기꺼이 기부하고 있다. 그 소년이 바로 사진작가 탁우영(서초D공동체)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사님들 무료로 사진 찍으러 오세요!”

사진관 운영하며 나눔과 봉사 실천하는 ‘탁우영 작가’

양재 온누리교회 벽화 속 예수님이 옆드린 코 당을 곳에 아주 특별한 사진관이 있다. 탁우영 작가(서초D공동체)가 운영하는 ‘조 이어스 탁 포토스튜디오’다.

사진관에 들어서자마자 문에 달린 ‘기적의 가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NGO 기아대책에 기부하는 가게) 현판이 눈에 띄었다. 스튜디오 곳곳에서 기아대책 후원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동전 모으기 저금통과 스마트폰 ‘기대함’ (후불교통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결제금액이 기부됨), 기아대책 브로셔까지 기아대책 후원을 위한 가게처럼 보였다.

또한 탁 작가는 ‘필란트로피 서포터즈 1호 (기아대책 재능나눔자)’로서, 후원금을 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기아대책 홍보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를 기아대책 사진촬영에 두고 있을 정도다. 지난주 화요일(19일)에도 기아대책으로부터 급하게 사진촬영 요청이 들어왔다. 탁 작가는 예약되어 있던 고객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조정하면서까지 기아대책 사진촬영을 우선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안태환 장로님이 ‘크리스천의 선행은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나눔과 기부를 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나눔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교사들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있다.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기도편지를 보고 후원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제가 선교하러 나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 사진이라도 찍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나마 선교에 일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 사진관을 차린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교회와 가까우면 선교사님들이 부담 없이 촬영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부와 나눔을 우선하다보니 돈 안 되는 일 천지다. 사진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눔과 봉사를 우선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됐어요. 사진 찍으



탁우영 사진작가가 자신이 찍은 인물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면서 나누고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나의 꿈은 사회사업가

탁우영 작가의 장래희망은 중학생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사회사업가’가 되는 꿈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온 식구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5명이 그 단칸방에서 무려 20년을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긴 했지만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어요. 단칸방의 유일한 장점은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데라곤 방 한 칸뿐이거든요 (웃음).”

지금이야 유쾌하게 말하지만 그 시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는 환경이 좋지 않았던 탓에 병까지 생겼어요.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때 교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크면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꿈은 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였어요.”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생

겼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꿈이 떠올랐다. 가장 먼저 한국에서 열악하게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싶었다. 그런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 방법을 온누리교회에 와서 찾았다.

“여호수아공동체 예배에 와서 주보를 봤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랑부’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로 온누리교회에 등록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승합차에 태워서 체육대회에도 가고, 안산M센터에서 봉사도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려 수원과 팽택 등지에도 갔고요.”

7년 동안 의료선교팀 CMN 마노아팀 총무로 섬기기도 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눔과 봉사를 우선순위에 뒀더니...

탁 작가가 11년이나 다닌 대기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을 때였다.

“아는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자기 동생이 일산에서 베이비스튜디오를 하는데 몇 달 정도 봐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공공롭게 화보 촬영 등 사진 관련된 일들이 들어왔다.

“한번은 청담동에서 웨딩스튜디오를 하는

친구 일을 도왔어요. 화보 촬영하는 지인의 일을 도운 적도 있고요. ‘리터쳐’라고 사진을 보정하고 편집하는 일인데 그걸 하면서 기술도 배웠고요. 본의 아니게 사진 관련 일을 배우고 실습하게 됐어요.”

탁 작가는 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 직장 대신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 사진관을 차렸다. 물론 사진관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다. 임대료, 전기세, 카드값 등 각종 대금을 내는 날이 다가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작가가 심했다. 날이 갈수록 빛이 쌓여 갔다.

“각종 대금을 내는 날은 다가오는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조명을 모두 끄고 지냈을 정도였어요. 빛이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3년 동안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야 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다름 아닌 나눔과 봉사의 힘으로 이겨냈다. 사진관을 교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고, 기아대책에 먼저 연락해서 사진 찍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주일에 모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성도들에게 사진관을 빌려줬어요. 어차피 비는 공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나눔과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입소문과 도움으로 사진관이 잘 되기 시작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처지가 그럴 처지냐? 돈도 안 되는데 쫓아다닐 처지가 아니지 않냐?’ 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눔과 봉사를 우선순위에 뒀더니 제가 걱정하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탁 작가는 지금 딱 한 가지 아쉬운 거 빼고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선교사님들이 제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무료로 사진 찍으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꽤 끼치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진 찍는 것 밖에 없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히 사진 찍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고 역사적 예수 연구 시리즈

세상 가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 기준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참 복의 8가지 선언은 예수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준다. 제자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며,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다(눅 6:20~23).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은 뒤집힌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역설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박해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들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8복의 선언이란 가치의 전도(顛倒)를 말한다.

8복은 종말론적 선언으로써 이러한 복이 현실 속에서는 복음을 영접한 개인적 심령 속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나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에게는 약속되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현재에 다가온다. 예수와 동행한다면 새로운 척도로 살게 되고 미래의 복은 현재로 다가온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b~21).

예수의 하나님 나라 약속은 현재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는 신자의 마음속에 평안과 희락으로 현재하며, 미래에 인자로서의 예수의 강림 속에서 온전히 실현된다. 천국의 가치 질서는 이 세상의 가치 질서와 다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목사의 아들인 독일의 철학자요, 무신론자인 니체는 반기독교적 선언을 하면서 전통적 가치의 전도(顛倒)를 선언하였다. 그는 낡은 기독교 신을 대체하여 ‘초인(Ubermensch)’이라는 새 인간의 모습을 제시한다. ‘낡은 신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새로운 새벽이 동터 오르는 듯이 느낀다. 도래하는 신은 축제의 희생양 ‘디오니소스(Dionysos)’를 의미한다.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자에게서 점차 등을 돌렸다. 니체에게는 디오니소스가 새로운 구원의 신이었던 것이다. 그는 전통적 기독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차안의 생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의 전복(顛覆)(Umwertung)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속화된 기독교가 진정한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현실 인간의 비참과 고통

“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는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적 권위의 말씀이었다.

”

을 피안과 결부됨으로써만 구원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산상설교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도덕을 ‘노예도덕(Sklavenmoral)’이라고 비판하고 초인의 ‘군주도덕(Hermmoral)’을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군주도덕은 삶의 미래와 개방성을 거부한 인간을 신격화하는 현세주의에 입각해 있다. 니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에 대하여 ‘디오니소스(Dionysos gegen den Gekreuzigten)’를 새로운 신으로 대체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서 해체의 길을 열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의 삶에서 가치 전도(顛倒)의 삶을 경험하였다. 바울 등 사도들은 유대인과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속이고, 무명하고, 죽은 자요, 징계 받은 자며,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참되고, 유명한 자이며, 살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존귀하게 인정받았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8b~10).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로 인하여 외부의 곤경에 예속되지 않고 답답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 버틴 바 되지 않고 쓰러져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후 4:8~9).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 대한 신앙과 충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기 이르렀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지혜롭고, 약하나 강하고 존귀하며, 비천하게 주리고 목마르며 때 맞으며 모욕을 당하여 만물의 쓰레기 같이 되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고향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

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고전 4:9~13).

사도 바울은 니체가 말하는 가치의 전도가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가 복음 안에서는 미련하고, 세상의 풍요가 복음 안에서는 가난함이 되고, 세상의 영광이 복음 안에서는 수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신자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세상의 미련이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의 가난함이 영적 풍요함이고, 세상의 수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팔복이 실현된 자들의 원형

팔복 받을 마음이 온전히 갖추어진 자는 나사렛 예수다. 팔복 선언은 인간 예수의 내면에 숨겨진 그의 인품의 초상화다. 팔복을 선언하는 예수의 설교 배후에는 그의 인격, 그의 마음이 있다. 예수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양식으로 유대교가 신앙의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권위를 능가하는 가르침을 선언하신다. 산상설교는 숨겨진 기독교이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찬가(Christus Hymnus)는 이를 말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그리스도 찬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의 신성과 겸허한 낮아짐이라고 다음같이 강력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참 복은 그분 자신의 신비에서 나타난다. 그분은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9).

그는 마음이 청결한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애 통하셨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세우신 분이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28).

예수를 모시는 자는 그의 제자가 되고 그 마음속에 예수의 성품을 지닐 수 있다. 예수께서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세상의 물욕과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

사화(四禍) 메시지: 저주 선언

누가는 그의 복음서의 예수 산상설교에서 축복 선언(Blessed are you)에 이어 저주 선언(Woe to you)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악한 자들에게 임할 화와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는 이 저주 선언을 예레미야 17장과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는 형식에서 취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의 산상설교 기록에서 사회적 인 곤궁의 적나라한 궁핍을 더욱 강력하게 반영하며 그러한 궁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축복에 대응하는 저주 선언이 보충된다. 이는 완악한 부자들, 불의한 권력자들, 권모술수자들, 윤리적 방종자들 등에 대한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가 특별히 예리하게 선포되며 세상 적으로 완악한 부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임박함이 선언되고 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the rich ones)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눅 6:24).

부자와 나사로 비유(눅 16:19-31)에서 예수는 세상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가 내세에 당할 저주에 당하여 말씀하신다. 관리는 붉은 색의 옷을 입고, 보통 사람은 붉은색 옷을 입지 않는다. 부자는 붉은색 옷에 또 흰색 옷을 입는다. 아주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돈이 많고 생활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붉은색 옷에 흰색 옷을 입고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단순히 ‘부자라서 지옥가고 가난해서 천국간다’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주의 경고, 청지기로서의 자각, 재정 관리의 법칙, 무엇보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인색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말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those having been filled)여 너희는 주리리로다”(눅 6:25a).

불의한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여 배를 채우고 있다. 예언자 이사야는 불의한 권력자의 수탈을 정죄하고 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 10:1~2).

이들에게 하나님의 별하시는 날에 멀리서 환난이 다가 올 것이다. 포로 되어 가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었드려질 것(사 10:3~4)이라고 예언자는 경고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those laughing now)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눅 6:25b).

세상의 열락에 취한 자들은 자기의 책무와 사명을 방기하는 자들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세상의 열락에 취한 자들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사 22:13).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사 22:14)라고 심판을 선언하신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눅 6:26).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화(禍)가 있다. 이들은 사회정치적으로는 포퓰리스트들이다. 이들은 진리와公道(公道)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진정한 유익과 진리의 추구보다는 자신들의 인기에 연연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적 불법 가운데서도 평화가 세워진다고 거짓을 진실처럼 유포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새로운 모세 ‘예수’

나사렛 예수는 모세의 계명을 부정하지 않고 그 내면성 즉, 정신을 살리고자 한다. 예수는 새로운 모세(the new Moses)로 소개된다. 예수는 구약의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확대 연장하는 위대한 모세다. 예수는 모세 십계명의



코시모 로셀리(Cosimo Rosselli)의 ‘산상설교와 나병 환자의 치유’.

외면적 형식보다는 내면적 정신을 강화한다.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고자 하신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천둥소리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랑의 언어로 인격적으로 산상(山上)에서 가르치신다. 산상설교는 새로운 토라(the New Torah)다. 모세가 시내산의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온 데 반해서 예수는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서 생명의 계명인 사랑의 법을 받아서 갈릴리 해변 산에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마태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다음같이 생생하게 전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으로 율법의 요구를 능가한다(überschreiten)는 것이다. 그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며,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마 5:39b~42).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마 5:44).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율법의 온전한 실행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요구이다. 신약학자들은 ‘진실로(amen)’라는 단어는 바리새인이나 다른 율법학자들 등(等) 다른 랍비에게서 볼 수 없고 역사적 예수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용어라고 본다. 마태는 예수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

5:19).

예수는 율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이 세상은 더 행복한 장소일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산상설교의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데 성공할 수는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윤리를 당시 율법 종교의 윤리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의 의는 율법 종교의 의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의 내면화

십계명이 멈추는 곳에서 산상설교는 시작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

살인이란 분노하는 행위에 의하여 유발되기 때문이다. 예수는 동기를 중요시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1~28).

예수는 “범죄한 눈을 빼어 버리고 범죄한 손을 찢어 버리라”고 극단한 설교를 하신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9~30).

예수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가르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39~42).

예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먼저 대접을 베푸라는 황금률(마 7:12)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이 원수 사랑의 가르침은 유대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의 독특성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 모세 능가

예수의 설교는 당시 랍비들이 하는 설교와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었다(마 7:28~9). 마태는 예수가 산상에서 행한 설교의 말씀이 당시 유대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독특성은 “옛 사람에게 말한바...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마 5:21~22, 27~28, 31~32, 33~34, 38~39, 43~44)라는 어법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설교의 어법은 당시 서기관들의 설교방식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역사적 예수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설교 어법만이 아니라 설교 내용도 역사적 예수의 독특한 유일성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 예수는 여태까지 전해 내려오거나 당시 유대교에서 만들어진 율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단지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살리면서 그 규정의 정신을 내면화 시키고 있다. 그 예가 위에서 언급한 바 같은 살인과 간음에 내적 동기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악한 자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마 5:43)은 구약성경에는 없다. 예수 시대의 유대교 내부의 당파 싸움에서 비로소 그러한 계명이 나타난다. 당시 쿨란 문서에는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예수는 유대교 종파의 가르침을 거절할 뿐 아니라 수정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4~48).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은 여태까지 어느 선지자의 가르침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역사적 예수의 독특성이다. 이러한 설교 어법과 내용들은 예수만이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신 설교방식이다. 이러한 산상설교는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적 권위의 말씀이었다.

(끝)

군선교를 위한 화요기도모임 700회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신관 101호



군선교팀 리더십들이 모여 군선교를 위한 화요기도모임 700회를 축하하고 있다.

군선교를 위한 화요기도모임(이하 화요기도모임)이 700회를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기도모임이 지난 1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도모임에는 군선교 리더십과 성도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메시지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가 ‘복음’을 주제로 전했다.

박 목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군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군선교팀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61만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04년 시작된 화요기도모임에서

는 나라와 민족, 군선교 등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열린다. 군선교와 군복음화에 관심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 전도학교 참가자 모집

서빙고 3월 17일, 양재 3월 10일 개강

전도 목적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온누리 전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전도학교는 3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 홍보관, 양재 온누리교회 전도학교는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

주 주일 오전 8시 40분 강의동 305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3월 17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는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과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10-3226-4364
양재 010-2414-4820

성령 충만과 사회선교

사회선교부 리더십모임 개최

사회선교부 각 사역팀 리더십들이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열린 사회선교부 리더십모임에서 ‘2019년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눴다.

사회선교부 리더십모임은 임정열 장로(교양은평공동체)의 대표기도,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의 말씀, 정운오 장로(동작공동체)의 사역팀 소개, 배준학 집사(한강공동

체)의 연간일정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부 본부장)는 ‘성령 충만과 사회선교’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사회선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권찬송 기자

2월 세레자

■서빙고	서노아 171014	지상현 김지은	이기열 750606	유수현 180417	한보람 박민정	황태환 870816
박연정 840417	서좌원 박소정	차사랑 180508	이미희 810124	유지원 강노아		
유은주 770909	서노엘 171014	차영욱 박연정	조영아 760525	이서현 180123	■대학청년부 허브	
최강미 890905	서좌원 박소정		입교	이선근 이슬기	여호수아	고지연 941202
입교	유수호 180102	■양재	심만수 901205	이원소 180309	김민정 800519	박수진 970926
배요셉 040206	유현우 김혜림	곽일정 750728	이석진 880301	이석진 정승훈	김수연 960622	박진혁 991014
유아	장리아 180106	김소연 810703	유아	전하나 180523	김정연 860306	황영주 940722
권새하 181016	장현구 최윤미	김율이 660901	김유찬 170122	전 원 차미라	빈정하 920203	입교
권태남 김미연	조하임 170227	박남용 671205	김광현 장성아	최시울 180630		권성국 921022
박온유 170319	조우진 한정욱	박현목 791111	김하은 170403	최준환 계기정	J4U	이소향 941124
박성식 정유라	지해나 170426	변지희 780302	김진혁 여민경	한로빈 180413	정혜림 860929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3768	김재민	SNS	1133794	김경록	교양은평	1133823	양서희	여호수아	1133857	서하진	서산온누리
1133769	구나영	SNS	1133795	김승현	교양은평	1133824	안성은	송파A	1133858	강수영	OEM/영어예배
1133770	김지윤	SNS	1133796	이은주	대전 동누리	1133825	김명숙	부천 화평	1133860	김덕준	동작
1133771	조새롬	SNS	1133797	Aki Baba	도곡	1133826	김선혜	J4U	1133861	김은영	도곡
1133772	김빛나	SNS	1133801	신현주	푸른누리	1133827	심명재	J4U	1133862	장윤수	동대문중앙
1133773	김현수	SNS	1133802	김정희	분당B	1133828	윤관영	분당B	1133863	장기봉	인천 믿음
1133774	민채홍	SNS	1133803	심재일	영등포구로	1133829	조은희	J4U	1133864	안재홍	수원 남누리
1133775	현새미	SNS	1133804	조주연	Bridge33+	1133830	김선문	J4U	1133865	정종민	강남B
1133776	송웅진	SNS	1133805	임성환	Bridge33+	1133831	조은수	J4U	1133866	장은호	양재
1133777	최민지	SNS	1133806	황다경	서대문	1133832	박용규	성동광진	1133867	윤지수	SNS
1133778	김대윤	Point5	1133807	김학건	중국어예배	1133833	이광우	양천	1133868	김태희	노원
1133779	윤홍은	허브	1133808	정현진	S보릿지	1133834	주슬기	허브	1133869	윤영선	SNS
1133780	최주은	허브	1133809	이민지	수원 남누리	1133835	김재원	허브	1133870	서혜원	SNS
1133781	김제원	대전 동누리	1133810	조가현	여호수아	1133836	이하은	허브	1133871	박상미	SNS
1133782	최규연	하늘	1133811	이동영	여호수아	1133837	임보배	Bridge33+	1133872	권지희	SNS
1133783	한상우	하늘	1133812	신희정	여호수아	1133842	노권일	관악금천	1133873	이지현	SNS
1133784	황유진	하늘	1133813	김재방	여호수아	1133843	신동철	서대문	1133874	김주현	SNS
1133785	이재영	하늘	1133814	염민지	여호수아	1133845	박종우	동대문중앙	1133875	박진영	SNS
1133786	최정은	하늘	1133815	박지수	여호수아	1133846	김희민	도곡	1133876	장민영	SNS
1133787	윤혜선	허브	1133816	서승연	여호수아	1133847	권세웅	서대문	1133877	김평강	SNS
1133788	이서영	허브	1133817	김재영	여호수아	1133848	이경환	강남D	1133878	김용지	SNS
1133789	권새일	중국어예배	1133818	김현욱	여호수아	1133849	이은주	서초C	1133879	임소영	SNS
1133790	WU MINGDAO	중국어예배	1133819	김현식	여호수아	1133850	이윤주	동작	1133880	이용훈	SNS
1133791	김미선	인천 소망	1133820	최아람	여호수아	1133851	김진	노원			
1133792	홍승표	서초D	1133821	정수희	여호수아	1133854	이상욱	강동 프라미스			
1133793	김윤혜	강남B	1133822	오란	여호수아	1133855	김질수	인천 소망			

양지,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실시

오늘(24일) 오전 11시 박모세홀

양지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소속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이 오늘(24일) 오전 11시 양지 온누리교회 박모세홀에서 실시된다. 이번 진로상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비전과 꿈을 발견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강사는 진로상담전문가 이은경 박사(미래교육경영연구소)이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학부모를 위한 진로강의’가 양지 온누리교회 스크랜턴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31-331-8171

/ 권찬송 기자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 모집

3월 9일부터 8주 동안 서빙고 비전홀

가정사역본부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이 3월 9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부부가 정서적 친밀감으로 하나 되어 가정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부부코칭 프로그램이다.

‘부부관계 측정’, ‘이상적인 가정관’, ‘배우자 바로알기’, ‘부부관계 개선 TOOL 소개’, ‘준비된 가정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10-9041-5538

두란노바이블칼리지 3월 세미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독서지도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 세계관 여행’ 세미나가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윤유희홀에서 진행된다. 유경상 대표(크리스천싱킹센터)가 강의한다. 회비는 21만 원. 3월 4일까지 등록하면 2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456

■ 온누리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태훈 집사(일산공동체)

평소에 전도에 관심이 많았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온누리 전도학교(이하 전도학교)가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전도학교 첫 시간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결단했다. 더불어 전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알고 싶다고 고백했다.

전도학교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그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상했다. 청년 시절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보다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하지만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청년시절에는 〈사영리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 20여 년 전 주님을 전하던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다. 주님이 나를 전도학교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전도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전도

전도하는 기쁨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고속터미널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의 반응이 매우 냉담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소개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고등학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잠깐 시간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곧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이 가득해졌다. 그들과 함께 영접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 후에도 나는 안산M센터와 청량리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전도학교 팀장님, 조장님, 부조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무한한 헌신이 없었다면 전도학교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다.

■ 화성M센터 한국문화교실 강사 간증



/ 성진희 집사(수원 온누리교회)

나의 작은 달란트가...

나는 2016년 예수제자학교(JDS)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 막연하게나마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기도했다.

나는 ‘한국아로마테라피 강사협회’ 소속 강사이다. 천연재료로 비누와 양초, 화장품 등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작은 공방을 하나 하려고 오랜 시간 준비해오고 있었다. 아직 기회가 되지 않아 공방은 차리지 못하고 여러 학교와 복지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내가 꿈꾸는 공방은 작은 가게를 열어 수업도 하고 비누를 만들어 파는 곳이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달란트를 사용하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한 사모님께 자격증 과정 수업을 해드렸다. 얼마 후 그 사모님이 시험에 합격했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그 사모님은 중국에

서 비누공방을 열어 비즈니스 비자로 중국에 들어가게 됐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병간호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방에 있는 재료들을 팔려고 했다. 그러던 중에 이주민선교학교와 예수제자학교(JDS) 강사님들을 통해 화성M센터를 알게 됐다. 나는 화성M센터에 공방에 있던 모든 재료들을 기부했고, 나의 작은 달란트로 이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4주 동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공예 수업을 진행했다. 나는 그 일이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마지막 수업 때 네팔에서 온 친구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내게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앞으로 수공예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다. 나의 작은 달란트가 한 영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4주 동안의 수공예 수업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나의 작은 달란트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소망한다.

■ CGNTV 세라핌합창단원 간증



/ 김진석 학생(CGNTV 세라핌합창단)

하나님 경험하는 통로

CGNTV 세라핌합창단(이하 세라핌합창단)이 지난달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나는 이번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다.

나는 3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유치부 시절에는 성경암송대회와 찬양대회에 참석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했다. 하지만 세라핌합창단에 들어오기 전까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셨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내가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다. 응급실에도 자주 실려 가셨다.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세라핌합창단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 입단했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변성기가 올 시기였고, 중학교 공부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입단하게 됐

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끌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다.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세라핌합창단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세라핌합창단 단원들이 공연하던 자리를 내가 즐겁게 뛰어다녔다고 하셨다.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서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금세 돌이키고 주님을 의지한다. 찬양 연습도 열심히 한다.

나는 3년 동안 세라핌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선교지에서 찬양도 하고 무대에도 많이 섰다. 세라핌합창단은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줬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줬다. 최근 들어 어머니 건강이 조금씩 좋아졌다. 모두 세라핌합창단에 입단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나에게 꿈이 하나 생겼다. 작곡 공부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만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고혜선 성도(관악금천공동체)

나를 변화시킨 ‘일대일 제자양육’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어머니는 몸을 아끼지 않으시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나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나를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첫째 아이 예준이가 많이 아팠다. 감기가 오래가면서 천식까지 걸리게 되었다. 임원을 자주 하게 됐고 양약과 한약, 민간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했다. 하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예준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속상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예준이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다니라고 권하셨다. 나는 예준이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치료가 되지 않던 천식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런데 아이가 건강해지니 나의 신앙생활이 또 다시 느슨해지며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다.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보기

시작했다.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공동체에 속해있지 않고 말씀으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말씀이 없으니 나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같았다.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했다.

양육자님은 첫 만남에서 배의 방향키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나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말씀도 함께 살펴봤다.

양육자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됐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됐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이제껏 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는지도 알게 됐다. 나의 신앙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 16주 동안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김승진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다.

장로칼럼

“돌이키고 더욱 겸손해지자”

안태환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40대 중반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이라

는 말을 사용해왔다.

토요일에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안 내실 집사님에게 물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인데 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신앙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이 시무장로가 됐고 이제는 사역장로가 되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 변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칭찬도 받았다. 분수에 맞지 않는 직분도 받고, 여러 사역에 쓰임도 받았다.

사역장로가 되고 나니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1년에 2번씩 성경을 통독하던 것이 어느새 52번째 성경통독으로 접어들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나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

님께 은혜를 구하니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교회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의 좋은 모습만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교회의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아름다워 보인다. 모든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드리고 사역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

오랫동안 CMN의료선교팀 대표 장로와 공동체 대표 장로로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임 받고 혹시나 버려지지 않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다가왔다. 매순간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했다. 믿음이 부족한 내가 과분한 직분을 맡아보니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다.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내 자신을 살펴 보던 중에 “돌이키고 더욱 겸손해지자”고 경고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음성을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 온누리교회 캠퍼스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 양지 온누리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며칠 전 1년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했던 동반자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나는 그 분이 병상에 있을 때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성도님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잘 섬기겠다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분을 데려 가셨다. 섬섬한 마음보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바쁘게 살았던 58년의 삶보다 병 중에서 고통 받으며 기도 속에서 살았던 그 1년이 더 귀하고, 주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지혜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주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

권사칼럼

세상과 구별된 삶

민부홍 권사
(인천 온누리교회)

인천 온누리교회가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금요금식기도회’를 진행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금요

일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종일 예배를 드렸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인천 온누리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영적무장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인천 온누리교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20일 전부터 연합기도회를 했다.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번 금요금식기도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인천 온누리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했다. 이번 금요금식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인천 온누리교회 안에 가득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금요금식기도회에는 예배의 기쁨부음이 충만했다.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담당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한다”고 권면하셨다. “다음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

다.

나는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봤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내게 하나님은 내 자녀와 가정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늘 마음의 만족이 없었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됐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2년 전 직장을 그만뒀다. 이번 금요금식기도회를 통해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마음이 떠올랐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금요금식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됐다”고 고백한 분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거창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상처를 직면하기를 원하셨다. 이번 금요금식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다. 그때마다 금요금식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신앙에세이

전신의 목사
(분당A공동체)

성경은 공동체 이야기로 가득하다. 구약에는 에덴동산 공동체, 가인과 아벨 공동체, 노아의 방주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 다윗의 아들람 공동체가 있다. 신약에는 마리아와 요셉 부부 공동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공동체,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다. 바로 한국 교회 공동체다.

‘공동체(communitas)’란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라는 뜻으로 라틴어 ‘코뮤니타스(communitas)’에서 유래하였다. 사회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을 ‘리미날리티(liminality, 문턱)’ 단계라고 칭

했다. 이러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여 있는 상황을 ‘코뮤니타스’라고 불렀다. 문턱은 용기를 가지고 모험과 위험을 나서는 경계선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호주의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의 저서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에서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해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라는 경계선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코뮤니타스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배반했던 무리들이다.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성령을 받은 그들은 모두 복

음 전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제자 코뮤니타스로 거듭났다. 그들을 예수 제자 공동체로 이끈 원인은 바로 성령이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 부흥으로 이어졌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 때문이었다. 나는 온누리교회 공동체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성령 공동체란 성령의 바람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성령에 폭 잡겨 그 속에서 헤엄치는 공동체를 뜻한다. 그렇다면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모든 가족에게 내려왔다고 증거했다. 그 성령으로 인해 고넬료의 가문은 또 하나의 십자가 코뮤니타스로 탄생했다.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이 임하면 기도하게 된다.

나는 7년 동안 공동체를 섬기면서 성령 충만한 순들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순들은 공동적으로 모든 순원들이 성경을 통독하거나 큐티 나눔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순장은 순원들의 기도제목을 매주 업데이트했고, 모든 순원들이 매일 한 명의 순원을 위해 집중 기도하였다. 그 순의 말씀과 기도가 깊어졌고 결국 순이 부흥하였다.

3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순장영성수련회가 진행되고 순 예배가 개강한다. 어떤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는가?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교회 문턱을 넘어 생수의 강처럼 세상으로 흘러가 죽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온 누리를 살리는 ‘성령 코뮤니타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아브라함의 기도

“내가 그 10명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제안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응답이 동일했습니다. “50명을 위해 내가 용서하겠다, 45명을 위해 용서하겠다, 40명을 위해, 30명, 20명, 10명을 위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간구하면서 점점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교훈하듯이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30명부터는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실까봐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라며 점점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더 이상은 내려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노하시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숫자를 제시하든지 의인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숫자가 줄어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흥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고, 태도를 보셨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뻐하셨기에 숫자가 계속 줄어도 동일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그 성에 의인 1명만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의인 1명을 제시해도 “그 의인 1명을 위해서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

첫째,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이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거나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겸손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실까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멸망 받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했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받기로 계획된 곳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의 간청이 드러지면 그 기도를 근거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표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론을 근거로 호소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곳에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주장을 풀어 보면 네 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의인은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악인이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멸망 받아 마땅하지만 멸망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의인은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계속 동일하게 응답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이 원리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에 의인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위해, 의인을 통해, 그 의인으로 인해 멸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의로운 분을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악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롬 5:18).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장차 멸망 받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 의의 나라 백성들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멸망당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멸망 받을 운명에서 건짐 받기를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유일한 근거는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악인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장차 멸망 받을 이 세상 가운데 건짐 받는 백성들이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과 원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크리스천의 지혜로운 재정관리 ①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얼마 전 한국인들의 사망원인이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였던 자살을 밀어내고 폐질환이 4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유인즉, 중국발 미세먼지와 오래된 경유 차 등에서 뿜어대는 미세먼지들로 인해 폐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잘 고르는 방법과 착용법, 미세먼지 대처방법 등이 국민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다. 매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세먼지 상태를 살피고 ‘나쁨’ 일 경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과 미세먼지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평안하게(?) 살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반

된 태도는 비단 건강관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두 부류로 나뉜다. 과도한 부채와 신용카드 사용 남발로 재정 건강 상태가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위험한 재정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중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있다.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코비 박사는 일에 대해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업무,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업무,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업무,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업무이다.

예산 지출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몇 번에 해당될까? 예산 세우기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국가는 매년 한 해 예산을 세운다. 복지비용 얼마를 쓸 것인지, 교육예산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 ‘예산 세우기’

얼마를 책정할지, 국방비는 얼마를 사용할지 등 한 해 국가살림을 미리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어 포퓰리즘에 빠지게 될 수 있고, 교육비와 국방비로 너무 많은 돈을 씌으로써 서민경제가 침체되어 바닥상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산 세우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출할까?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가 상담했던 어느 부부의 경우, 한 달에 외식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부는 외식비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있지 않았다. 그냥 주말에 TV보다가 “피자나 시켜먹을까?”, “오늘은 치킨이 땡기네”하면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한다고 한다. 그렇게 땡길 때마다 주문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외식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니, 소득 대비

10% 이상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식비를 소득 대비 5%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하고, 지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예산을 정하는 것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의미의 지출인 매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과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조차 예산을 정하고 실행한다면 계획적인 구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거장 ‘존 맥스웰’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며 예산 세우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자기 돈이 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정확하게 지시하는 일이다. 예산을 세우면 이미 없어져버린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뒤늦게 후회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원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장 십일조를 포함한 선교 및 구제헌금, 기부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경조사비, 연간 여행비 등을 지출 항목별로 예산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Acts 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9년 2월 24일(주일) | 제1234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광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광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7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

예배 예약안내

일시: 3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

능(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성관람객)이어야 함)

문의: 서빙고 최연희 간사(02-3215-3179)

양재 배현서 간사(02-570-7505)

두란노 어머니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3월 13일~4월 10일(매주 수 오전 10

시~오후 2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접수: 아이스쿨, 02-2182-9114,

www.mother.or.kr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준환 성가사(010-5304-7039)

꿈아이놀이터 32기 모집

대상: 22~38개월

기간: 3월 20일~5월 22일(매주 수 10시 40

분~12시 40분)

문의: 임지희 코치(010-6253-7397)

꿈아이놀이터 교사모집

분야: 음향, 세팅, 찬양, 데코, 반주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CGNTV

3.1운동 100주년 특집 프로그램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값진 독립과
앞으로 써나가야 할 새로운 100년의 역사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방송



‘3.1 운동과 기독교’ 강사 이덕주 교수

1강 총과 칼 대신 성경으로 / 2월 26일(화)**2강** 독립 운동의 거점이 된 교회 / 3월 5일(화)**3강** 유관순과 서대문형무소 여감방 8호실 / 3월 12일(화)

‘천안 매봉교회’ 편

독립운동의 명문가 유관순 열사 가정이 출석한
천안 매봉교회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민족정신

2월 25일(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GNTV 개국 1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

작고 연약했던 여인들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난 그날의 이야기

3월 3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CGNTV 시청안내

IPTV **olleh** ch.237 **SK B tv** ch.302 **LG U+** ch.271 **케이블** **D'LIVE** ch.304 **CJ HELLO** ch.322 **현대 HCN** **HYUNDAI** ch.550(서초구)

*이제 **YouTube** 로도 CGNTV를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 '**CGNTV**' 검색